

홍콩전자전, 대덕 벤처 최고 인기



4월 17일 폐막된 '제1회 홍콩춘계전자전'에서 대덕밸리 IT 벤처기업들의 제품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배명렬)는 대전광역시와 공동지원한 '홍콩춘계전자전 2004'에 참가한 11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2000만달러(상담액 1640만달러, 계약예상액 45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소형 휴대용 태양전지 충전기를 출품한 솔레이텍(대표 이만근)은 4일간 약 100여 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벌였다.

솔레이텍의 제품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 바이어들로부터 '더브콜'이 집중됐다. 이만근 대표는 "하루에 많게는 30여 명의 바이어가 부스를 찾았다"며 "6월에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됨에도 독점권을 달라는 바이어가 있을 정도"라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또한 복합 LCD TV(브랜드명 : 아이렉스)를 출품한 닥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영일)는 이번 전자전에 참가한 33개 국내업체 중 가장 많은 해외바이어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렉스'는 17인치 LCD TV 모니터 안에 TV 튜너와 DTV 수신기, DVD·CD 플레이어를 내장한 제품이다. 회사측은 "현재 이같은 복합제품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모델 하나밖에 없다"며 "특히 이 모델은 두께가 훨씬 얇고 저렴해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레이트론의 광센서 및 광송수신기, 하나메디칼의 개인용 조합자극기, 솔레이텍의 소형 휴대용 태양전지 충전기, 아이피에스의 택시단말기 등에 바이어들이 집중됐다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무역협회 이만식 과장은 "홍콩춘계전자전은 올해가 첫 회인 만큼 해외바이어의 내방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염려했지만 전시회 기간동안 약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만큼 대전시와 함께 내년부터는 더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시회에는 16개국, 1465개 업체가 참가했다.

신제품 신기술

마동이, 마늘 건강식품 '레드파워' 출시



홍마늘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살린 신개념의 기능성 마늘 건강식품이 출시됐다. 대덕밸리 농업 벤처기업 마동이(대표 정광환)는 홍삼의 제조원리를 이용해 마늘을 찌서 추출, 분말시킨 홍마늘과 마,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혼합 가공해 개발한 '레드파워'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마늘이 지니고 있는 유효성분의 손실과 탄화없이 가공해 마늘 특유의 냄새와 자극성을 줄였고 피로회복과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레드파워는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주기에 맞게 찌서 이를 분말화해 각종 약초 등과 혼합, 마늘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살리는 한편 마늘 특유의 냄새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처럼 마늘을 홍삼의 원리를 이용해 찌서 가공, 출시한 제품은 레드파워가 처음이다. 또한 레드파워에는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어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결합해 수용성 비타민인 알리타민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을 20배까지 향상시켰다.

이 제품은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식품전에 출품돼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미국과 일본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정광환 대표는 "우리 조상의 과학적 원리를 마늘에 적용해 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보조식품 뿐만 아니라 술과 화장품 등에 적용해 마늘의 대중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